

2024 헝가리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FDI 증가로 EU 전기차 밸류체인의 중심지로 부상	5
나.	동결된 130억 유로의 EU 자금 수령 기대	7
다.	헝가리 지방선거(2024년 5월) 실시	8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0
2.	시장 분석	17
가.	시장 특성	17
나.	교역	18
다.	투자	20
라.	프로젝트	23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4
가.	교역	24
나.	투자 진출	25
다.	협력 유망 분야	26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30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1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2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37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39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41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2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헝가리 경제는 2023년 10월 현재 연말까지 0.3%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3.1%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IMF)
 - * 현지 중앙은행 전문가들은 3.5~4.5%, 대부분의 경제 분석가들은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헝가리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가 위축되며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자 현상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그린필드형 해외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이에 따른 수출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헝가리 경제의 기반은 견실한 편이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임
 - * 2023년 헝가리 FDI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64억 유로)의 약 2배(130억 유로)에 달할 전망

- ※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증가로 EU 전기차 밸류체인의 중심지로 부상
- ※ 지난해 지급이 보류된 130억 유로의 EU 자금에 대한 지급 승인 기대
- ※ 헝가리 지방선거 실시 : 2024년 5월

가. FDI 증가로 EU 전기차 밸류체인의 중심지로 부상

▣ EU 완성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세계 4위의 배터리 생산국

- 전기차로의 전환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분야이고, 이러한 분야의 핵심은 이차전지이며, 현재 EU는 전기차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는데,
- 헝가리는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해 유럽의 전기차 및 이차전지 밸류체인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모든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세계 2위의 배터리 생산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 있음
 - *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포진해 있는 독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과 접근성이 우수하여 유럽 역내의 적시 물류(JIT)에 기반한 밸류체인에 편입하기 유리한 지리적 장점이 있음

▣ 한국에 이어 중국의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

- 헝가리는 최근 급증하는 한국의 현지 투자에 힘입어 이차전지를 비롯하여 가전제품·타이어 등의 분야에서 EU 밸류체인상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음
 - * 한국은 단일 연도 기준으로 2019년, 2021년, 2022년에 헝가리 최대 투자국임
- 2022년 CATL의 약 73억 유로 투자를 위시하여 2023년에 들어서는 신왕다(15억 유로), 화요코발트(13억 유로), 이브배터리(10억 유로) 등 중국의 글로벌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대형 투자 계획들이 잇따르고 있음

▣ 헝가리는 지금 첨단 공업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

- 헝가리 동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인 데브레첸, 니레지하저, 미슈콜츠의 경제발전 삼각지대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고,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한 도로망이나 에너지 확충 등의 인프라 개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인구 1,000만 명의 국가에 대규모 그린필드형 투자들이 계속 확대되어 에너지, 인력, 주택, 학교 등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있음

나. 동결된 130억 유로의 EU자금 수령 기대

▣ EU는 법치주의 위반을 이유로 헝가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동결 : 2022년 11월

- EU는 헝가리가 법치주의를 위반*하여 EU 예산을 보호하기 위해 헝가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동결시켰고, 이러한 동결 조치의 해제조건으로 28개 특단의 조건(super milestone)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히 이행을 요구했음
 - *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확립, 부패 척결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을 동결
- 이처럼 EU의 지원이 동결된 자금들은 EU의 균형 발전을 위한 75억 유로의 개발기금과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을 위한 58억 유로의 기금임

▣ 헝가리 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최근 EU의 자금 승인을 고려하는 분위기

- 이러한 조치가 있었던 2022년 말 헝가리는 경제 위기 상황*이어서 헝가리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이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왔음
 - * 물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무역적자도 증가했고 러-우 사태로 인해 전기와 가스요금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이었음
-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하반기 자금 동결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최근에는 EU가 조건부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어, 조만간 대규모의 자금이 헝가리로 유입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
 - *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하는 헝가리에 대해 EU가 조건부로 동결 해제 고려

다. 헝가리 지방선거(2024년 5월) 실시

- 헝가리 지방선거와 EU의회 선거 동시 실시
 - * 지난번 지방선거는 2019년 10월, EU의회 선거는 2019년 5월에 실시되었는데, 2022년에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내년에는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
- 현 집권 여당은 2022년 총선에서 4회 연속 장기 집권에 성공한 다수당(199석 중 135석 차지)이지만, 2019년 지방선거에서는 상징적 지역인 부다페스트 시장을 비롯하여 지방 10개 도시의 시장 자리 등을 야당에게 빼앗긴 바 있음
 - * 집권 여당이 여전히 지자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부다페스트시 23개 자치구의 14개 자리와 지방 23개 주요 도시의 10개 자리에 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득표수에서는 오히려 여당이 더 많은 결과가 발생했음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親러·극우 성향의 강단 있고 민생경제를 우선하는 정부의 장기 집권
- ※ (경제) 불안정한 경제 흐름이 안정화되고 정부의 재정적자도 감소
- ※ (산업) 지정학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유럽의 첨단 공업국으로서 발전
- ※ (정책·규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시행, 투자지향적 동방정책의 지속

가. 정치 환경

▣ 親러·극우 성향의 강단 있고 민생경제를 우선하는 정부의 장기 집권

- 2022년 4월 총선에서 피데스(Fidesz)-기독교민주국민당(KDNP) 연합정당이 승리 (135/199석 차지)해 오르반 총리는 2010년부터 4번째 집권에 성공(총 5선)
* 초선: 1998년, 재선: 2010년, 3선(1차 연임): 2014년, 4선(2차 연임): 2018년, 5선(3차 연임): 2022년
- 현 정권은 민생을 우선시*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해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방정책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음
* 25세 미만 청년층 개인소득세 면제, 군인과 경찰관의 급여 인상(10%) 등
* 원자로 추가 건설, 지하철 재정비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러시아 기업의 단독 입찰 참가 등
- 그러나 헝가리는 EU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에 불참하고 젠더 및 난민 관련 문제 등에서 극우주의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헝가리의 반유럽 및 민족주의적인 강단 있는 주장과 행보는 EU와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음

▣ 다양한 성향을 표방하는 야권 측 정당들 간 연대 가능성

- 헝가리 야당은 우익민족주의, 중도좌파 사민주의, 중도 환경주의, 진보적 환경주의 등 아젠다와 정책, 그리고 성향이 다른 다수의 당들로 이루어져 있음

- 지난번 총선 때는 오르반 총리에 대항하려는 명분만큼은 강해서 연대를 할 수는 있었지만 연대의 유효성은 낮았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2024년도 지방선거 때 야권 측이 어떠한 모습으로 연대를 시도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 다수의 야당들 간 성향이 너무 다양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정책 등이 마땅하지 않았음

나. 경제 환경

▣ 헝가리 경제는 지난해 높은 물가·환율·공공요금(전기·가스)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흐름이 계속되었지만 2023년 들어서는 많이 완화되고 있음

- 물가는 2023년 17.6~18.1%에서 2024년 4~6%로 대폭 안정화되고, 경제성장률도 2023년 -0.5~0.5%에서 2024년 3~4%로 회복할 것으로 보임
- * 출처: 헝가리 중앙은행(MNB)
-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높은 경제성장만을 추구할 수는 없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물가 인하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음
- 소규모 개방경제인 헝가리로서는 경제성장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수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지난해 6.2%였던 헝가리 정부의 재정적자는 2023년 목표를 5.2%로 최근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대 미만인 2.9%로 줄어든 것으로 보임

- 2023년에도 재정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EU의 對러시아 제재에 따른 영향 등 외부 요인이 증가했고, 높은 에너지 보조금 부담 증가, 그리고 헝가리 국방비 지출 증가(GDP 2% 수준) 등 내부요인이 발생함
- 특히, 높은 물가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정부 수입의 주요한 세수인 부가가치세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임
- 2024년에는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3개년간 유보되었던 3%의 재정적자 준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2023년보다는 나아질 것
- * EU가 회원국의 재정을 건전하기 운용하기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과 안정·성장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의 재정적자와 GDP 대비 60% 이하의 국가 채무를 기준으로 정함

▣ 2023년 10월 현재 EU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에 대한 헝가리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현재 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약 130억 유로에 달하는 EU 자금의 승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음

- 또한 헝가리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022년 사상 최대치(64억 유로)를 기록했음에도 2023년 이보다 약 2배 증가한 130억 유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출도 더욱 증가하고 있어 경제 기반이 견고하다고 보고 있음

다. 산업 환경

▣ 헝가리의 지정학적인 이점

- 헝가리는 V4 국가들과 더불어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완성차 밸류체인에 적시 공급(JIT)이 가능한 지리적 입지를 갖고 있음
-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헝가리 인접국인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에 이미 글로벌 완성차 제조공장들이 자리 잡고 있음
 - * (폴란드) 폭스바겐, 볼보, 오펔 등의 승용차 외 MAN, Scania, Solaris 등의 버스공장 발달
 - * (체코) 스코다, 현대, 토요타
 - * (슬로바키아) 기아, 폭스바겐, PSA 푸조 시트로엥

▣ 자동차 산업

- 헝가리는 상기와 같은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최근 첨단산업 분야로서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이차전지는 헝가리 경제성장을 리드하고 유럽의 생산기지로 성장하고 있음
- 유럽에서 완성차를 제조하는 독일 3사(아우디, BMW, 메르세데스-벤츠)의 생산공장이 있는 국가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헝가리가 유일
 - 헝가리 전국으로 7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자동차 밸류체인의 Tier 1급 공급업체들이 66개 있으며,
 - 연간 42만 개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1억 9,000만 개의 엔진을 생산하며, 이들의 경제활동이 헝가리 GDP의 3.9%를 차지하고 있음

- 자율주행 종합 운행이 가능한 잘라존(Zala Zone) 도로 구간을 운영하고,
- 20개 대학에서 자동차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매년 5만 2,000여 명이 직업전문교육을 받으며, 자동차 분야에 고용된 인력은 약 15만 8,000명으로서 헝가리 총 고용인력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은 헝가리에서 4번째로 큰 외국인 직접투자(FDI) 국가로서, 최근 3년간(2019년, 2021년, 2022년) 단일 연도 기준으로 헝가리 최대 투자국이었음
 - 이차전지, 타이어,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독보적인데, 2023년 들어 중국의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잇따르고 있음

■ 전자제품 산업

- 전자제품은 헝가리 제조업의 약 22.7%를 차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누계 금액이 약 99억 유로에 달하며, 연간 약 247억 유로의 생산가치를 갖고 있음
 - * 생산된 제품의 92.8%가 수출되고, 헝가리 전체 수출의 30.2%를 차지하며, 고용된 인력은 약 17만 5,000여 명에 달함
- 120여 개의 산업공단과 전자제조전문서비스(EMS)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5개), 안정적인 기후 여건과 전력 공급, 그리고 이차전지 여건 등이 갖춰져 있음
-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 약 27,000여 명으로 매년 9,300명의 졸업자가 배출되고, 7,000여 명의 인력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음

■ 식품 산업

- 식품은 헝가리 제조업의 11.4%를 차지하고, 연간 생산은 124억 유로에 달하고, 생산품의 약 45%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음
 - * 대표 품목 1 (고기류) : 연간 생산 2,948백만 유로 (내수 60%, 해외 40%)
 - 대표 품목 2 (음료수) : 연간 생산 1,634백만 유로 (내수 77%, 해외 23%)
 - 대표 품목 3 (펫푸드) : 연간 생산 1,514백만 유로 (내수 52%, 해외 48%)
 - 대표 품목 4 (간편식) : 연간 생산 1,199백만 유로 (내수 42%, 해외 58%)
- 생산 자동화, 품질 체크, 할랄 등 국제 기준 준수, 고급 패키징 등에 이르는 전 공정에 있어 60여 개의 대형 기업과 3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있으며, 이 분야에 고용된 인원은 14만 명에 달함

▣ 바이오 사이언스 산업

-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바이오 사이언스 산업은 중동부 유럽에서 헝가리가 최고 수준이며, 제조업의 약 10%를 차지
 - * 외국인 직접투자(FDI) 누계 금액이 58억 유로에 달하며, 헝가리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
- 제네릭 의약품, 원료 의약품(API) 등의 생산과 약초산업이 발달했고 의약화학, 임상 전 시험, 줄기세포 연구 등을 집중 연구하며, 세바-필락시아 연구소와 같이 세바의 각종 백신을 개발하고 선도하는 글로벌 R&D 연구소가 있음
- 제약 및 의학업체는 4개 클러스터(부다페스트, 데브레첸(Debrecen), 세게드(Szeged), 페치(Pécs))에 주로 소재해 있음

〈헝가리 제조산업 주요 기업〉

순위	분야	산업 비중	주요 기업 (영업이익 기준)
1	자동차	23%	Mercedes-Benz Manufacturing Hungary Kft.
			Magyar Suzuki Zrt.
			Robert Bosch Energy and Body Systems KFT.
			Schaeffler Savaria Kft.
			Lear Corporation Hungary Kft.
2	전자제품	11%	Flextronics International Kft.
			Harman Becker Kft.
			Robert Bosch Elektronika Kft.
			Cloud Network Technology Kft.
			Continental Automotive Hungary Kft.
3	식품	11%	Nestlé Hungária Kft
			Coca-Cola HBC Magyarország Kft.
			Hungrana Kft.
			MASTER GOOD Kft.
			Unilever Magyarország Kft.
4	고무, 플라스틱, 건설 소재	9%	HANKOOK TIRE Magyarország Kft.
			COLOPLAST Hungary Kft.
			IBIDEN Hungary Kft.
			Duna-Dráva Cement Kft
			Bridgestone Tatabánya Kft.

순위	분야	산업 비중	주요 기업 (영업이익 기준)
5	금속	8%	Arconic-Köfém Mill Products Hungary Kft. Wuppermann Hungary Kft. Howmet-Köfém Kft. Hydro Extrusion Hungary Kft. ÓAM Kft
6	전기장비	7%	SAMSUNG SDI Hungary Kft. SK On Hungary Kft. Electrolux Lehel Kft JÁSZ-PLASZTIK kft MPF-FÉG Kft.
기타	제약	-	Teva Gyógyszergyár Zrt. CHINOIN Zrt. Egis Gyógyszergyár Zrt. Ceva-Phylaxia Zrt. HUMAN BioPlazma Kft.

라. 정책·규제 환경

▣ ESG 규제 환경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시행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는 2023년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규정되고 실제 적용되기 시작했음
 - * 제품의 생산자에게 제품과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헝가리 정부는 2021년 입찰을 통해 2022년 7월 헝가리 최대 석유·가스기업인 MOL을 정부의 폐기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위탁사업자(35년)로 선정했음
 - * MOL은 사업 수행 조직으로 2023년 1월 MOHU(MOL Hulladékgazdálkodási Zrt.) 설립
- MOHU는 2023년 7월 1일부터 35년간 정부의 위탁 서비스를 제공
 - * 폐기물의 수거와 사전 처리는 MOHU가 직접적으로 관리·이행하고, 폐기물의 리사이클링, 에너지 이용 및 매립은 MOHU와 계약이 체결된 민간 기업들에 의해 관리·이행

- EPR 책임은 헝가리 시장으로 환경 품목을 최초 들여오는 자가 부담하고,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MOHU 관리 대상인 환경 품목에 해당되지 않음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정책 환경 : 동방정책(Keleti Nyitás)의 지속 유지

- 현 정권은 2010년 집권하면서 동방정책*을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서구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 유치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동방정책은 9%의 낮은 법인세를 유지하고 아시아 기업들에게 투자친화적인 여건과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 헝가리의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정학적인 여건을 활용하여 서방과 동방 간의 경쟁을 통해 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정책임

▣ 전력 정책 환경 :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RePowerEU 실행(안) 제출(8월)

-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인상과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의 부족에 대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주요 전력 생산원의 안정적 공급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산업용 전력은 산업단지들의 에너지 사용을 그린화하여 자급자족하는 여건을 갖추고, 가정용 전력은 태양광을 이용하여 에너지 커뮤니티를 확산하려 함

2

시장 분석

- ※ (특성)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리드하는 유럽 첨단산업 밸류체인의 중심지로 부상
- ※ (수출) 외투 기업들의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
- ※ (투자) 현 정부의 동방정책의 기조와 親기업적인 정책은 지속 유지
- ※ (프로젝트) 첨단 공업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산업 인프라 개발 추진

가. 시장 특성

▣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리드하는 유럽 첨단산업 밸류체인의 중심지

- 헝가리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지리적 이점과 정부의 투자친화적인 정책,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법인세 등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경제발전을 리드하고 있음
- 자동차, 전자, 바이오 사이언스 등 유럽의 첨단 공업국으로서 지금 헝가리는 변화하고 있어 유럽의 밸류체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격지임

▣ 유럽 동부 중앙에 위치한 유럽 시장 진출의 관문

- 헝가리는 인구 1,000만 명으로 내수시장은 크지 않지만, 유럽 중동부에 위치해 있고 헝가리 시장에서의 성공은 EU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레퍼런스를 갖게 되므로, EU 시장 진출로 연결되는 관문으로서의 가치가 있음

〈유럽 동부 중앙부로서의 헝가리의 위치〉



나. 교역

▣ 수출입 동향

- 2022년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지만, 2023년 들어 외투 기업들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

〈헝가리 대외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전년 대비 증감	금액	전년 대비 증감	금액
2017년	113,498	10.18%	104,402	13.21%	9,096
2018년	123,958	9.22%	117,391	12.44%	6,567
2019년	122,181	-1.43%	117,333	-0.05%	4,847
2020년	119,971	-1.81%	113,433	-3.32%	6,537
2021년	141,157	17.66%	139,144	22.67%	2,013
2022년	149,934	6.22%	159,351	14.52%	-9,417
2023년(1~8월)	106,473	-	102,347	-	6,127

자료: 헝가리 통계청(KSH)

- 헝가리는 對유럽 교역 의존도가 70%대로 높은 편으로서 수출 상위 10개국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이며,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진입장벽

- 제품에 따라 EU 공통 인증인 CE를 비롯해 유해물질 제한 및 환경안정성 인증 등 취득이 필요하며, 화장품은 CPNP, 자동차 분야는 E-Mark 등 필요

〈주요 인증 제도〉

CE (EU 공통, 공산품)	RoHS (EU 공통, 전자제품)	REACH (EU 공통, 화학물질)	헝가리 친환경 인증 (헝가리, 자율)
			

- 헝가리 내 제품 유통을 위해서는 헝가리어 라벨링이 필수
- EU 집행위에서는 2050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세 (CBAM)를 2023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했음

수출 성공 사례 : 철강제품(코일) 도소매 M사(헝가리 수출)

- 1차 금속제품인 철강제품(코일)을 소규모 맞춤형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유리한 가격조건과 더불어 바이어의 관심을 확보하는 데 충분했고,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역 사기 해프닝에도 함께 대처함으로써 기업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음. 2019년 57,919달러, 2020년 22,430달러 등의 성약이 발생했고 계속하여 확대될 것으로 전망

HS 코드 (6단위)	세부 품목	대(對)한 수입 증가율	대(對)한 수입액
721030/7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8/'19) -8.2%	('19) 7,937,000

- 헝가리의 작은 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적은 MOQ에도 대응하고 국내 제조업체와도 우호적 관계를 보유하고 있어 높은 품질의 제품을 경쟁사 대비 20% 정도 저렴하게 제공 가능
- 마케팅 방법으로 지사화, 현지 전시회 참가(10월) 등을 사용했음
- 유의사항 :
 (맞춤형 거래) 작은 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MOQ를 낮게 설정하고 장기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객의 선호에 따라 제품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
 (무역 사기) 초기 거래가 있는 이후 연이은 협상 과정에서 이메일 계정이 해킹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바이어와 M사 간의 빠른 인지와 KOTRA 부다페스트/스톡홀름 무역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전액(약 5만 유로)을 회수할 수 있었음. 이는 회사 간 관계가 두터워지는 데 크게 기여했음
 (유연성) 바이어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거래로 신뢰를 획득한 이후에는 일부 대금 납부 지연에 대해서 용인하고 상호 편의를 봐주는 형태의 거래로 진행될 수 있었음

수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비교 : MOQ(최소주문수량) 대응 관련

- 헝가리는 인구가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시장이어서 중국, 미국 등과 같은 시장 규모를 기대하고 이에 유사한 수준의 MOQ를 요구할 경우 거래가 취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가령, 수처리 필터 A사는 초반에 10,000달러가량의 MOQ를 요구했지만, 바이어와 함께 무역관에서 헝가리 시장 규모에 대해 설명을 하고 바이어의 진정성 있는 장기적인 관계 구축 의사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메일, 화상상담 등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헝가리 A사의 제품 판매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하반기 6,000달러가량의 수출 거래에 성공했음
- 비강 삽입물 B사는 초반 헝가리 바이어의 샘플 구매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하여 신뢰를 형성했지만 이어지는 추가 샘플 구매와 적은 규모의 MOQ 요청에 대해 답장 지연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음. 바이어는 더 이상의 협의를 하지 않았고,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음
- 유의사항으로는 A사의 사례에서처럼 헝가리 바이어가 적은 수량으로 주문을 하더라도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내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 독일, 오스트리아의 수처리 필터 제품이 지배적인 헝가리 시장에서 한국산 필터가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데도 도움이 됨

다. 투자

▣ 동방정책 기조의 유지

- 한국과는 정치·경제적으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헝가리에 국민으로 방문,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 한국의 이차전지, 전자제품, 타이어 등 대형 제조업체의 다수가 진출해 있고 2019년, 2021년, 2022년에는 한국이 헝가리 최대 투자국일 정도로 양국 간의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추세임

〈한국의 연도별 헝가리 투자 동향〉

(단위: 개 사, 백만 달러)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규법인	8	20	43	27	25	33	18
투자금액	13.38954	393.5915	739.5511	328.475	847.3466	1,841.357	223.4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 특히 지난해부터 중국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그린필드형 투자 유치 계획 발표가 이어지고 있음
 - 2022년 9월 CATL이 약 73억 유로의 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여 추진 중이고,
 - 2023년에는 신왕다 15억 유로, 화요코발트 13억 유로, 이브배터리 10억 유로 등의 중국 글로벌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대형 투자 계획들이 잇따르고 있음
- 자동차 제조에 있어서는 일본의 투자가 독일에 이어 2번째로 많음
 - 헝가리 국민차로 불리는 스즈키는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 중심의 유럽 생산 거점을 확보하였으며 배터리 및 배터리 첨가제 생산기업도 진출 중
 - * 일본의 주요 진출기업: Suzuki(완성차), Denso(부품), Musashi(부품), Bridgestone(타이어), GS Yuasa(배터리), Nippon Paper(배터리 첨가제)

▣ 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 헝가리는 자국 내 민간자본이 부족하여 외국인 투자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유리한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 법인세 인하(19%→9%, 2017년), 낮은 고용주세 유지(13%), 경쟁력 있는 투자 인센티브 (30~50%) 제공 등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 여건을 조성
- 지난해 하반기에는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관련하여 상업용 전기요금이 폭등하자 헝가리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 헝가리 주요 투자국은 한국과 유럽 국가들로 구성

- 2022년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중 63%는 유럽 국가들이고, 유럽 외 국가로는 한국 22%, 미국 19% 등이 투자를 주도했음

〈연도별 헝가리 외국인 직접투자 국가별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유럽	3,978.8	1,419.7	2,959.0	3,563.7	5,478.7
오스트리아	456.3	751.2	840.6	470.1	1,588.3
벨기에	1,504.6	-774.8	1,461.9	-277.8	381.3
영국	-705.7	1,266.5	1,590.3	748.4	-129.5
프랑스	518.6	384.9	577.0	-1.0	13.7
룩셈부르크	973.2	1,385.6	1,104.6	683.6	1,917.0
스위스	-42.5	654.0	900.3	294.9	-1,479.5
북미	788.7	1,006.7	97.6	341.5	1,610.0
미국	853.9	998.6	201.6	304.2	1,612.6
아시아	1,330.4	979.1	2,850.6	2,707.1	1,699.6
이스라엘	-28.6	-109.6	1,277.0	821.1	-54.7
한국	911.2	769.4	831.3	1,163.9	1,918.4
일본	187.2	265.0	214.0	97.2	44.6
중국	49.3	132.2	52.3	99.0	96.5
아프리카	143.9	93.5	92.2	141.4	56.7
오세아니아	144.0	100.3	269.0	158.9	314.1

자료: 헝가리 중앙은행(MNB)

<동유럽 주요 국가들의 비즈니스 경쟁력 비교>

지표(순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한국	발표기관
Ease of Doing Business	52	40	41	45	55	5	World Bank
Starting a Business	87	128	134	118	91	33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08	39	157	146	147	12	
Getting Electricity	125	60	11	54	157	2	
Registering Property	29	92	32	8	46	40	
Getting Credit	37	37	48	48	25	67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97	51	61	88	61	25	
Paying Taxes	56	77	53	55	32	21	
Trading across Borders	1	1	1	1	1	36	
Enforcing Contracts	25	55	103	46	19	2	
Resolving Insolvency	66	25	16	46	56	11	
Total tax & contribution rate (% of profit)	37.9	40.8	46.1	49.7	20	33.2	
Time required to start a business (days)	7	37	25	22	20	8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7	37	32	42	51	13	WEF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77	55	56	53	63	31	TI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46	43	18	53	48	28	IMD

자료: World Bank, World Economic Forum(2020), Transparency International(2023.1),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2023.6)

▣ 투자 진출 진입장벽

-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 현지 인구 수가 1,000만 명이 채 안 되고, 최근 5년간 3%대의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어 구직자 우위 노동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신규·증액 투자에 있어 인력난이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으며 젊고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의 해외 유출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
 - 2022년에는 물가와 환율 인상으로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고,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 인상되기도 했음
 - 구인난 타개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외국 인력 신속 도입 절차를 신설했으나,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
- 러-우 사태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현지 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17%)을 보이고 있어 원가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라. 프로젝트

▣ 첨단 공업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산업 인프라 개발 추진

- 지난 9월 건설교통부 장관(János Lázár)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데브레첸(Debrecen)-니레지하저(Nyíregyháza)-미슈콜츠(Miskolc) 삼각지대를 언급
 - 이 지대에 새로운 경제지대를 만들고, 데브레첸을 이 삼각지역의 중심도시이자 헝가리 제2의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했음
- 헝가리 정부는 러-우 사태가 발발하자 국방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적 조치로 개발 프로젝트들을 중단시켰음
 - 최근 사회적·정치적·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우선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24개 도로 개발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러한 프로젝트들 중에는 상기 경제 삼각지대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음

▣ 헝가리 정부의 에너지 액션플랜인 RePowerEU 실행(안) 제출 : EU(8월)

- REPowerEU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공급의 유연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EU의 진정한 에너지 동맹을 만들려는 조치
 - 헝가리는 제안서를 마감기한이었던 8월 말에 제출했는데, 이 제안은 사실상 헝가리 정부의 에너지 액션플랜에 해당되고, 지난해 11월에 지급이 중단된 헝가리 경제회복 부흥계획(RRP)을 보완하는 것임
- 투자금액의 상당수가 전력망 현대화에 사용되고, 재생에너지를 안전하게 연결시키기 위하여 용량을 확장하고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기존 네트워크를 지능형 네트워크로 개발
 - 태양열 발전소의 전력 생산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50개 기상관측소를 새롭게 만들고, 산업단지들의 에너지 사용을 그린화함으로써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 기업, 공공건물,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주요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고(연간 343GWH), 철도의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운영상 안정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게드(Szeged)-뢰스케(Röszke) 라인의 전철화와 7개 지방 전철변전소(Substation: SS)를 교체·보수할 계획

가. 교역

▣ 한국과 헝가리 간 수출입 동향

- 2022년 양국 간 교역액은 69억 달러로 헝가리는 폴란드와 함께 중동부 유럽의 주력 수출시장이며 부품 소싱으로 對헝가리 교역은 매년 높은 흑자를 기록
* 교역 규모(억 달러) : (2019년) 29.7 → (2020년) 36.0 → (2021년) 48.0 → (2022년) 69.5

〈한국의 對헝가리 연도별 교역 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8월)
수 출	금 액	2,477,567	2,926,395	4,051,512	6,162,873	4,986,994
	증 감 률	26	18.1	38.4	52.1	32.6
수 입	금 액	496,286	678,045	749,644	795,682	558,347
	증 감 률	-28.5	36.6	10.6	6.1	15.1
무역수지		1,981,281	2,248,350	3,301,868	5,367,191	4,428,647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요 교역 품목 (2023년 1~8월, 2023년 10월 기준 통계)
 - 對헝가리 주요 수출 품목 : 정밀화학제품, 기타기계류, 전자부품 등
 - 對헝가리 주요 수입 품목 : 수송기계, 산업용전자제품, 전자기기 등

〈한국의 對헝가리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 출 (2023.1~8월)			수 입 (2023.1~8월)		
	품 목 명	금액	증가율	품 목 명	금액	증가율
1	정밀화학제품	2,885	82.8	수송기계	170	60.3
2	기타기계류	400	70.6	산업용전자제품	94	15.4
3	전자부품	316	-28.0	전기기기	54	-9.9
4	수송기계	243	45.0	정밀화학제품	34	-9.0
5	산업용전자제품	229	-5.4	가정용전자제품	33	31.7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투자 진출

▣ 한국의 헝가리 투자 동향

- 우리 진출기업 수는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신규법인수(누계치) 기준으로 269개사(2023년 10월)이며, 주요 진출 분야는 이차전지, 전자제품, 건설업, 금융 서비스업, 물류 서비스 등임
- 삼성SDI·SK온의 이차전지 공장 건설 및 운영을 계기로 관련 소재부품의 제조 및 협력업체들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동반 진출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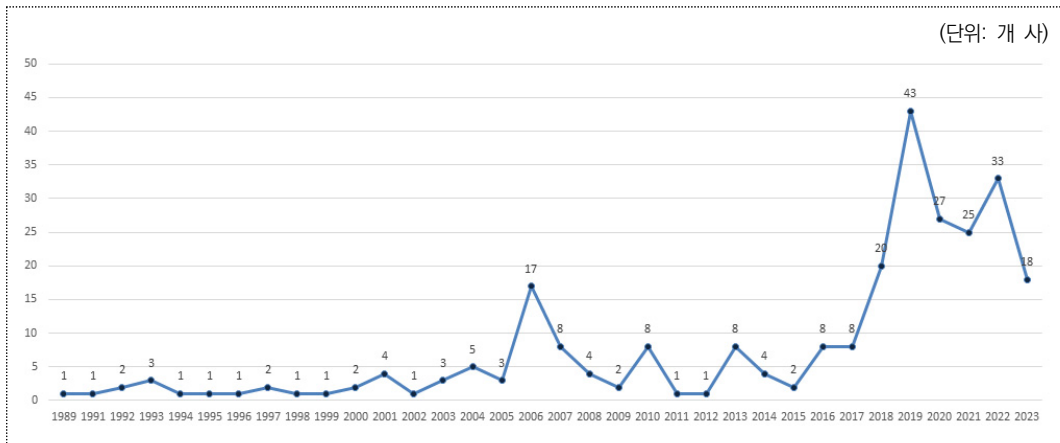
〈한국의 연도별 헝가리 투자 동향〉

(단위: 개 사, 백만 달러)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규법인	8	20	43	27	25	33	18
투자금액	13.38954	393.5915	739.5511	328.475	847.3466	1,841.357	223.44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 기업의 헝가리 신규법인 신고 현황〉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주요 진출기업

- 헝가리 주요 진출기업들로서는 삼성SDI(Göd, 이차전지), 한국타이어(Rácalmás, 타이어), SK온(Komárom, 이차전지), 한온시스템(Székesfehérvár, 자동차공조), 삼성전자(Jászfényszaru, TV), 신흥SEC(Monor, 이차전지 부품), 더블유스코프(Nyíregyháza, 이차전지 소재), 예코프로비엠(Debrecen, 이차전지 소재), LG화학(Nyergesújfalu, 이차전지 소재) 등임

▣ 기업 투자 성공 사례

구분	내용	시사점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헝가리 경제 개방과 동시에 영국 원야드에 소재했던 중대형 컬러TV 생산 시설을 이전 • 2007년, 2014년 2·3차 투자를 단행하며 생산물량을 확충했으며 삼성SDS 등 계열사와 협력사의 헝가리 진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진출을 위해 제조시설 운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입지 강화 • 헝가리인이 선정한 일하고 싶은 기업 순위 1위(2020년)로 선정되어 헝가리 대표 한국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음
SK이노베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내 이차전지 제조공장 가동을 위해 투자를 단행했으며 1공장(양산), 2공장(건설), 3공장(건설) 등 공격적 투자 전개 • 헝가리 투자를 통해 EU의 포괄적 환경 규제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고객사에 신속한 납품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럽 진출 교두보로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의 우호적 투자 환경 이점(낮은 법인세,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저렴한 인건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성공적인 투자 진출로 헝가리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높음

자료: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조사·작성

다. 협력 유망 분야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친환경·그린 모빌리티 분야 기술 협력
 - 한·헝 양국은 친환경 및 그린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3년간 약 50억 달러의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추진하기로 협약 체결(2022년 4월)
 - *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 정부 간 중장기 정책 자문 프로그램으로, 기술 전문 등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
 - 이를 통해 헝가리의 EU 그린딜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헝가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력 조달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 예정

- 의료 및 제약 분야 공동 연구개발
 - 헝가리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생산기지이며 유럽 제약산업 진출의 교두보
 - 한·헝 정부 간 보건산업 협력 MOU(2021년 11월)를 토대로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협력 예정이며, 이는 제4회 경제공동위(2022년 3월)를 통해 재확인

- 레이저 기술 기초연구
 - EU의 초고출력 레이저시설 4개소 중 1개소(ELI-ALPS)가 헝가리 남부에 소재
 - 해당 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재료 분야 기초연구 협력 추진 논의 중
 - * 제10차 한-헝가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참고: 헝가리의 주요 국가전략〉

국가전략	내 용
배터리 산업전략 2030 Battery Industry Strategy 2030	· 유럽 배터리 밸류체인 중심의 성장 목표 · 2025년까지 배터리 생산능력 200GWh 도달(20년 25GWh) 추진 · 핵심 이슈로는 넷제로(net zero), 탈탄소화, 자동차 산업 및 순환경제 기여, 헝가리 배터리 전략 등임
기가비트 헝가리 전략 Gigabit Hungary Strategy (GHS)	· 데이터 병목현상 없는 네트워크 구축 목표
국가 디지털화 전략 2021~2030 National Digitalisation Strategy 2021~2030	· 인프라, 기술, 경제, 정부 등이 핵심 디지털화 분야 · 2030년 목표 : 가정 95% 기가비트 네트워크 사용, 16~71세 98% 이상 디지털 기술 이용, 비즈니스 30% 이상 디지털화,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90%
인공지능(AI) 전략 Artificial Intelligence (AI) Strategy	· AI 분야에서 유럽 선두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 · 정부, 기업, 대학 등 260개 기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연합 설립 · AI 활용 사례 전파, 개발 지원 등 AI 발전 생태계 조성 추진 · 동 전략은 데이터 규제, 국가 연구소 설립, 기업 인센티브 제공,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 · 주요 전략으로는 ①기초 구축(개발자 커뮤니티 구축, 개발 지원 등), ②중점 영역 할당(제조업, 농업, 의료 등의 분야를 우선순위로 지정), ③변혁 프로그램 정의(기후변화, 노동시장 등 장기 지향점 설정)
헝가리 드론 전략 2030 Hungary's Drone Strategy 2030	· 현재 전략 구축 중이며 2022년 말 완성 예정 · 세계 수준의 드론 생태계 조성이 목적

▣ 기업별 협력 유망 분야

- 최근 러-우 사태의 영향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진출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에너지 대체 공급원 확보와 관련된 분야의 협력 추진
 - 유럽의 탄소 배출 축소 기조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달 필요
 -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과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를 위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지속 가능
- 헝가리는 인구 약 970만 명의 작은 시장이지만 최근 첨단 공업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재의 협력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헝가리는 건설, 농업, 에너지, 의료, 방산 등의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므로 이러한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협력 가능

〈참고: 한-헝 외교관계 현황〉

-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에 대한 협정(1988년)으로 동유럽 최초 한국과 수교
 - 한국 정상 헝가리 방문 2회(1989년 노태우 대통령, 2001년 김대중 대통령)
 - 헝가리 정상 한국 방문 7회(1989년 줄러호른 총리, 1990·1993년 아르파드 대통령, 2009년 라즐로 대통령, 2012년 필슈미트 대통령, 2014년 빅토르 총리, 2015년 야노쉬 대통령)
- 한국-헝가리 체결 주요 협정
 - (1989년 2월)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 ※ 2004년 EU 가입에 따라 종료
 - (1995년 3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협정 ※ 2005년 EU 가입에 대한 신규 협정 체결
 -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 (2014년 11월) 한-헝가리 운전면허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 (2015년 12월) 한-헝가리 군사비밀보호협정
- 한국-헝가리 수교 30주년: 2019년 2월
-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 방문 : 2021년 11월
- 한-헝가리 경제공동위원회
 - 2014년 제1차 경제공동위 :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원자력 인력 양성, 기술 혁신 협력, ECA 간 업무 약정, 한국 전자무역 시스템 수출, 한-헝 방위산업 분야 협력 등 논의
 - 2016년 제2차 경제공동위 : 헬기 수출, 헝가리 건설 프로젝트 진출, 전자무역 시스템 수출 방안 등 검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중소기업 협력, 방위산업 및 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2019년 제3차 경제공동위 : 산업, 과학기술·ICT, 보건의료, 건설 인프라 등 분야 협력 논의
 - 2022년 제4차 경제공동위 :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공급망 구축, 그린 디지털 전환 등 논의

Chapter



진출전략



※ 첨단 공업국으로 변화하는 여건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유럽 밸류체인 진출 지원
 ※ 정부의 대기업 성장과 한국의 우호적인 이미지로 유럽시장 진입의 적격지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러·우파 성향 정부의 장기 집권, 민생경제를 우선시 • 법치주의의 위반을 이유로 EU로부터 130억 규모의 자금 지원 동결 • 동결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헝가리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집중 • 2024년 5월 지방선거와 EU의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 •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다양한 성향의 야당 측 정당들 간 연대 가능성
E 경제 (Econo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은 0.3%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4년에는 3.1%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 • 2023년은 2022년에 인상된 물가·환율·공공요금(전기, 가스) 등으로 인해 원가 부담의 증가, 소비의 위축, 재정적자도 증가하고 있음 • 2024년에는 이러한 불안정한 흐름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최근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그린필드형 해외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이에 따른 수출도 지속 확대되고 있음 • 경제 기반은 견실한 편으로 앞으로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
S 사회문화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4 국가들과 같이 동부유럽 공업국으로서의 사회문화적인 기반 보유 • 인구 1,000만 명의 소규모 개방 국가로서 내수시장은 크지 않음 • 작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적은 규모의 MOQ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헝가리 시장에서의 성공은 EU 시장에서의 성공 레퍼런스로 작용 • 한국은 최대 투자국으로서 정치·경제적으로 우호적인 협력관계 유지 • 중국은 최근 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 수도에 푸틴 대학교 분교 설립을 추진하다 시민들의 항의로 포기한 바도 있음 • 최근 증가하는 외투 기업으로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T 기술 (Technolog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전지 생산의 첨단 공업국으로 변화하면서 20개 대학에서 자동차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매년 5만여 명의 직업교육도 시행 • 전자제조전문서비스(EMS)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5개)이 있고 안정적인 기후 여건과 전력 공급 등으로 전자산업에 유리 •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중동부 유럽에서 바이오 사이언스 산업을 리드하고 있음 • 제네릭 의약품, 원료 의약품(API) 등의 생산과 약초산업이 발달했고, 세바-필락시아 연구소와 같은 글로벌 R&D 연구소가 있음 • 산업 에너지 사용의 그린화와 가정용 전력의 태양광 이용 등을 통해 에너지 커뮤니티를 확산시키고 있음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헝가리 시장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V4 국가로서 독일·오스트리아 등과 인접
- 서유럽과 동방(아시아)을 연결하는 관문
- 헝가리 시장 진출의 성공은 EU 시장의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음
- 현 장기 집권 정부의 동방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한국 기업 FDI에 유리
- 낮은 법인세 등 친기업적인 정책의 지속으로 진출 기업에 유리한 환경
- 전자·의료·자동차 글로벌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어, 전후방 산업 협력 용이
- 제약 및 의료 산업 발달
- 대부분의 토지가 평지로 진출 시 공장 및 빌딩 건설에 유리하고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용수 공급도 풍부
- 기술 숙련도가 높은 인력이 있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보유

약 점(Weakness)

- 인구가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시장
- 유럽 동부의 발전국가로서 가치분소득이 높지는 않고 가격 탄력도는 높음
- 서유럽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130억 유로의 EU 자금 지원 동결로 경제 위축
- 높은 물가와 환율, 러-우 사태로 인한 높은 전기·가스요금 상승으로 진출기업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위축된 소비로 세수가 줄어 재정적자 증가
- 부가가치세는 유럽에서 가장 높음(27%)
- 작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적은 규모의 MOQ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협의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음
- 최근 증가하는 공장 설립으로 인력과 에너지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

기 회(Opportunity)

- 이차전지 등과 같은 유럽의 밸류체인에 편입하기 위한 적격지
- 현재 첨단 공업국으로 변화하고 있어 유럽의 밸류체인에 진출하기 위한 기회
- 서유럽과 동방(아시아) 간의 경쟁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 유리
- EU 자금의 지원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130억 유로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음
- 글로벌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인프라 개발도 계획되어 있는 유럽의 신흥시장
- 그린에너지 인프라 확충 수요

위 험(Threat)

- 친러·극우 성향의 강단 있는 주장으로 EU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인프라 개발을 위한 EU 자금의 지급이 지연
- 지방선거 실시로 정치변수 발생 가능
- 인구수가 적고 실업률이 낮아 인력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 제3국 근로자 활용에 따른 관리비용 발생
- 과도한 정부 지출, EU 기금 지급 지연 등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지연 예상
- 중국 기업의 공격적 시장 진출이 증가
- 러-우 사태에 따른 높은 에너지 가격 지속

전략 방향	세부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유럽 밸류체인과 연계되는 분야에 대한 그리필드형 현지 진출 및 파트너링 지원
ST 전략 (강점 활용)	• 유럽과 헝가리의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분야 진출
WO 전략 (기회 포착)	• 가성비 소비재의 시장 진출로 헝가리 진출의 성공을 유럽 레퍼런스로 활용
WT 전략 (위험 대응)	• 기업 진출 주기를 고려한 설비기계 분야 진출 및 우수 인력의 현지 채용 지원

진출전략
헝가리에 포지션된 EU 밸류체인 진출
에너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타깃
가성비 제품의 EU 유통망 진출 지원
글로벌 인재의 채용 지원

주요 이슈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p>헝가리가 포지셔닝하는 EU 밸류체인 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들어 헝가리는 전기차 및 자동차 이차전지, 의료 등의 분야에 집중하여 글로벌 밸류체인상의 첨단 공업국으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글로벌 OEM 등의 기업들이 다수 진입하고 있음 • 현지투자지원센터의 서비스 지원을 산업 분야별/기업별 특성에 맞게 제공하여 현지 애로를 해소하고 밸류체인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수출 마케팅 지원
<p>에너지 효율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타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우 사태 관련,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 공급 중단 등으로 유럽 전역은 에너지 공급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 커뮤니티를 확대시키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사업 기회가 있음 • 외투 기업들의 공장 건설이 증가하면서 헝가리 지방의 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이를 수출 기회로 활용
<p>가성비 제품의 EU 대형 유통망 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는 가처분소득이 높지는 않지만 유럽의 대형 유통망과 연계된 시장 • 헝가리에 소재한 유럽의 대형 유통망은 헝가리 지역 내의 구매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어, 가성비 제품 중심으로 시장 진출을 시도해볼 수 있음 • 헝가리 시장 진출의 성공은 유럽시장의 레퍼런스로서 활용할 수 있어 더 큰 유럽시장 진출에 사용할 비즈니스의 계기가 될 수 있음
<p>글로벌 인재 채용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는 실업률 3%대의 실질적 완전고용 시장 • 특히 제조업 분야의 공장 노동인력은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며 헝가리 정부 차원에서 외국 인력 도입을 추진 중이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함 • 또한 다국적 직원을 개별 기업이 직접 관리하기에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인력 관리업체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
<p>전략적 투자 진출 기회 모색</p>	<p style="text-align: center;">유럽 밸류체인에 첨단 공업국으로 포지셔닝하는 헝가리의 입지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p>

3-1. 헝가리가 첨단 공업국으로 포지셔닝하는 EU 밸류체인 진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헝가리는 최근 들어 전기차, 이차전지,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유럽의 글로벌 밸류체인상의 첨단 공업국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음
- 독일, 오스트리아에 적시 공급이 가능하고,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와 같은 유럽 동부 V4 국가들과 인접해 있어 유럽 밸류체인의 사업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유럽의 전기차와 이차전지 밸류체인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세계 2위의 이차전지 생산국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유망 품목) 이차전지 소재 및 부품 공급 기업과 설비류 설치 및 공급 기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 분야들의 업종들이 유망
- (진출전략)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자사 제품의 위치와 경쟁력을 고려하여 주요 고객사 및 협력사·부품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진출

〈헝가리 주요 산업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명	주요 내용
자동차	North Hungarian Automotive Cluster	- 소재 기업 : 73개 사 - 대표 기업 : Robert Bosch Power Tool, Modine - 주요 특징 : 헝가리 북부 자동차 산업 선도 클러스터
	Ányos Jedlik(Hungarian E-Mobility Cluster)	- 소재 기업 : 29개 사 - 대표 기업 : Merceds-Benz, Porsche Hungaria, E.On - 주요 특징 : 헝가리 e-모빌리티 발전 선도 클러스터
기계	South West Hungarian Engineering Cluster	- 소재 기업: 31개 사 - 대표 기업: Forsz, Hidrofilt 등 - 주요 특징: 기계 및 엔지니어링 산업 클러스터
의약품	Pharmapolis	- 소재 기업: 24개 사 - 대표 기업: MEDISO, PRS Pharma Ltd. - 주요 활동: 수출 중심의 데브레첸 지역 의약품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명	주요 내용
	Hungarian Medical Cluster	- 소재 기업: 56개 사 - 대표 기업: Medicor, Noviter, Braun - 주요 활동: 메디컬 기술 발전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ICT	Innoskart ICT Cluster	- 소재 기업: 56개 사 - 대표 기업: Ivanics, Magyarpet - 주요 활동: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력 확대 및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에너지	EcoPolis Cluster	- 소재 기업: 43개 사 - 대표 기업: MOL - 주요 활동: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주력

자료: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 조사

3-2. 에너지 효율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타킷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 공급 중단 등으로 유럽 전역은 에너지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경험
-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커뮤니티를 확대시키고 있음
- 외투 기업의 공장 건설이 증가하면서 지방 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추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유럽 전반의 에너지 수급 불안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하게 인상
 - 전력 소비량이 많은 제조업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로서는 높은 수준의 현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제조원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진출기업의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유럽 전반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기조에 맞는 태양광 에너지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공급량이 변동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유망 품목) 태양광 패널은 설치가 용이해 다수의 기업에서 발전설비 설치 추진 중
 - 헝가리 정부는 가정용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시설 설치를 위해 약 2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
- (진출전략) 유럽의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목표, 헝가리 정부 정책,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난 등 시장 상황 고려하여 진출 필요

▣ 현지 주요 협회

협 회 명	비 고
National Association of Gas Industry	http://www.goe.org.hu/
Hungarian Geothermal Association	www.mgte.hu
Hungarian Solar Panel Solar Collector Association	http://www.mnnsz.hu/
EcoPolis Cluster	소재 기업: 43개 사(MOL 등) 주요 활동: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주력

3-3. 가성비 제품의 EU 대형 유통망 진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헝가리는 가치분소득이 높지는 않지만 유럽의 대형 유통망과 연계된 시장
- 헝가리에 소재한 유럽의 대형 유통망은 헝가리 지역 내의 구매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어, 가성비 제품 중심으로 시장 진출을 시도해볼 수 있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헝가리 시장 진출의 성공은 유럽시장의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어 더 큰 유럽시장 진출에 사용할 비즈니스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유망 품목) 화장품, 기능성 소비재, 생활용품 및 가공식품 등 가성비가 좋은 우리 소비재 제품들
- (진출전략) EU 진출에 필요한 인증(화장품의 경우 CPNP 등)을 사전에 획득하고, 소규모 판매로 시장 진출 가능성 확인하며 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모색

3-4. 글로벌 인력 채용 지원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헝가리는 실업률 3%대의 실질적 완전고용 시장
- 특히 제조업 분야의 공장 노동인력은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며 헝가리 정부 차원에서 외국 인력 도입을 추진 중이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헝가리 소재 진출기업은 구인난으로 인해 현지 인력 채용 지원 필요
- 헝가리 정부에서 현지 인력관리업체를 통해 신속 도입 절차를 신설하는 등 인력난 타개를 위해 지원책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수요 충족은 어려운 상황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언어와 문화 차이를 교육 및 관리하는 인력 아웃소싱 업체가 경쟁력 보유
- 단, 인력 관련 업종의 경우 헝가리 정부의 관련 지침을 면밀히 파악 필요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초음파기기	선정사유	고령화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확대 전망
	시장동향	2017년 대비 수입 규모 112% 증가 및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 63% 증가
	경쟁동향	독일(34.4%), 네덜란드(26.3%), 중국(7.83%) 등이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우수한 품질의 한국산 제품 이미지 강조, IT와 결합한 우리 제품의 혁신성 홍보, 체험 기회 마련
품목명 2		
원격의료기기	선정사유	코로나19 유행 이후 병원 방문 없이 원격으로 진단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했음
	시장동향	헝가리 민간 의료시장의 55%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일부 제공
	경쟁동향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는 DOKIO, Orvost, T-doc, TELADOC 등
	진출방안	EU와 헝가리의 의료기기 및 서비스 관련법을 숙지하고 B2B 및 B2C 제공 서비스 연구
품목명 3		
의약품	선정사유	유럽 의약품 수요 대비 부족한 생산량이 기회요인
	시장동향	러-우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산 의약품 포장지가 부족
	경쟁동향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40%는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되며 수출 규모 1위는 독일
	진출방안	헝가리 제약협회(MAGYOSZ)를 통해 산업 정보를 파악한 뒤 초과수요가 있는 분야 분석
품목명 4		
구강관리 기기	선정사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강관리용 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2021년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
	시장동향	수입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기기 등 위생관리 기기 선호. 소비자가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는 매장에서 판매
	경쟁동향	헝가리는 독일, 중국, 한국으로부터 각종 의료기기를 수입
	진출방안	CE 인증을 취득하고, EU의 의료기기 규제를 숙지 필요. 특히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경우 EU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
품목명 5		
태양광 패널	선정사유	EU 2050 탄소중립 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집중 예정
	시장동향	헝가리 정부는 태양광 발전용량을 '20년 기준 2GW에서 2030년까지 6GW로 확충 예정
	경쟁동향	독일(41.6%), 중국(24%), 일본(9.49%) 등이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인구 규모가 작은 시장이므로 소량 거래로 시장 내 평판 구축 후 정부 조달 프로젝트 참여
품목명 6		
히트펌프	선정사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냉난방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또한 풍부한 지열에너지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

	시장동향	수입 규모는 2016년 대비 88% 증가하여 꾸준히 상승 중
	경쟁동향	이탈리아(27.5%), 중국(21.71%), 독일(20%) 등이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현지 유망 디스트리뷰터와의 EU 맞춤형 기기 개발 추진 인증 획득 및 시장 진출 토대 마련
품목명 7		
연수기, 정수기, 이온수기	선정사유	수처리 장치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헝가리 소비자의 수입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
	시장동향	전년 대비 수입 규모 9.5% 증가 및 지속 확대 중
	경쟁동향	독일(20.7%), 미국(17.27%), 이탈리아(8.41%), 네덜란드(7.59%) 등
	진출방안	적정한 시장 가격 설정과 함께 헝가리 포함 유럽의 수질 환경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필요
품목명 8		
공기청정기	선정사유	생산설비 증가에 따른 산업용 및 감염병 확산으로 개인위생 중시에 따른 가정용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
	시장동향	헝가리 기업 중 고품질의 공기 청정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는 관계로 수입의존도 높음
	경쟁동향	독일(58.78%), 폴란드(9.64%), 멕시코(9.26%) 등이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24시간 가동하는 경우도 있어 품질과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갖춘 진출전략, 평판 구축을 위한 기업 대상의 마케팅 필요
품목명 9		
화장품	선정사유	2020년 8월경 최초 오프라인 진출 등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꾸준한 인지도 상승
	시장동향	주름 방지, 안티에이징 등 얼굴용 화장품 인기 급증
	경쟁동향	독일(29.6%), 폴란드(15.96%), 크로아티아(10%) 등이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CPNP 인증을 바탕으로 현지 유망 유통업자 발굴이 중요하며 인구 규모가 작아서 초기에 샘플 제공 등 단계적인 접근 필요
품목명 10		
애완용품 (사료 등 포괄)	선정사유	헝가리 인구의 65%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는 매달 일정 금액의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 성장의 가능성 보유
	시장동향	애완용품(사료 위주)의 수입 규모는 2016년 이래 지속 상승했으며 89.5% 증가율 기록
	경쟁동향	독일(30.2%), 폴란드(19.69%), 체코(11.64%) 등 EU 권역 내 국가가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높아진 소득 수준에 맞춰 프리미엄 제품군 맞춤형으로 공략 가능하며 기술우위를 점한 제품군 진출 시도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디지털·통신업	선정사유	헝가리는 기기비트 헝가리 전략(GHS), 국가 디지털화 전략 2021~2030 등을 수립하여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인 바 관련 협력 수요가 큼
	시장동향	정부 차원에서 진출기업 활용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정부기관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
	경쟁동향	유럽 기업인 Telekom, Yettel, Vodafone과 중국의 Huawei가 5G 시장의 60% 가량을 선점
	진출방안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참여 및 글로벌 기업 생산 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요 확인 필요
품목명 2		
비즈니스 서비스센터 (BSC)	선정사유	정부의 전략적 투자 유치 분야로 헝가리인은 영어를 비롯하여 다수의 외국어를 구사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외국어에 관심이 높음)
	시장동향	British Tobacco, Nuskin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UNICEF 등 국제기구도 헝가리에 비즈니스 서비스센터(BSC) 건립
	경쟁동향	코로나19 확산 이전 역대 최저 실업률이 BSC 추진의 최대 어려움이었으며, 이는 경제 정상화 후 다시 이슈가 될 예정
	진출방안	글로벌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센터 및 유럽 지역 관리센터를 헝가리에 설치하여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 관리 플랫폼 구축으로 활용 가능
품목명 3		
콘텐츠 및 미디어	선정사유	동유럽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헝가리 국립대 한국어학과 및 세종학당 운영 등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
	시장동향	과거 드라마 '대장금'을 비롯해 한국 사극이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콘텐츠 영향력은 미미한 상황
	경쟁동향	헝가리는 미국과 서유럽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주로 소비
	진출방안	인플루언서와 매체를 활용한 홍보 필요
품목명 4		
금융	선정사유	한국 진출기업이 약 280개 사(22.10)로 금융 서비스 수요가 높은 편임에도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은행은 1개 사 진출
	시장동향	진출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유럽의 은행과 주로 거래하고 있으나, 한국 본사와 헝가리 지사 간 법적 관계에 따라 현지 은행의 기업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경쟁동향	한국수출입은행이 기업 및 개인 대상 금융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우리/신한은행은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
	진출방안	진출기업의 금융 수요를 파악해 진출

품목명 5		
물류	선정사유	진출기업의 공장 설비 및 중간재 수입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물류 서비스 시장 활발
	시장동향	한국 → 헝가리 중장비 및 소재부품 유통 다수
	경쟁동향	한국 물류기업 10여 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슬로바키아 등 EU 내 인근 국가에서도 유사 업무 수행
	진출방안	진출기업의 수출입 수요 파악을 통해 시장 현황을 조사하여 진출
품목명 6		
인력 아웃소싱	선정사유	제조업 분야 기업 진출이 많아 고용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노동인력 확보 필요
	시장동향	실업률 3%대의 실질적 완전고용 시장
	경쟁동향	제3국 국민 파견을 지원하는 인력파견업체 다수 운영 중 (헝가리 정부가 외국 인력 도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지정한 업체 14개 사 등)
	진출방안	진출기업 투자 단계(투자 결정, 착공, 공장 건설, 운영 등)를 고려하여 필요 인력을 공급하는 등 현지 인력 수요를 분석하여 진출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 헝가리 투자 진출 지원 사업(연중)

- (대중소 동반 진출 지원) 지역별/분야별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 진출 관련 현지 애로 해소 지원
- (자산인수형 M&A 지원) 헝가리 진출 인허가 간소화, 공사 기일 단축 등을 위해 헝가리 현지 자산 인수를 지원 (매물 발굴, 매물 실사, 계약서 검토, M&A 추진비용 지원 등)
-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에너지 수급 문제 등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현지 기관 및 협회들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

▣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 (화상상담) 내수 및 초보기업 대상 맞춤형 화상상담 지원
 - 현지 기관 네트워크 활용 바이어 수요 발굴
 - 화상 상담, 사후 교신 지원 통한 국내 기업의 성약 가능성 제고
- (지사화) 무역관 전담 직원을 통해 현지 진출 희망 기업 연간 지원
 - 무역관 지사화 전담직원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사 직원 역할을 수행
 - 정보 조사, 제품 홍보, 거래선 발굴, 업무 연락 등 지원

▣ 기타 수출지원사업

- (사절단) 현지 유망 분야 특화 무역사절단 운영(화장품, 소비재 등)
 - 추진 방향 : 국내에서 발굴된 유망 기업 또는 확인된 협력 수요 현지 초청
 - 주요 내용 : 현지 시장 동향 설명회 및 1:1 상담회 개최
- (채용 지원) 헝가리 해외취업지원사업(연중)
 - 추진 방향 : 해외 취업 희망 한국 국적자의 현지 취업 알선 지원
 - 주요 내용 :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지원사업 안내, ELTE대학 협업 취업박람회 개최, 현지 HR업체와의 취업 관련 정보 공유 등

첨부 4**'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지방선거	5월(잠정)	EU의회 선거와 동시 시행
EU의회 선거	5월(잠정)	지방선거와 동시 시행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EU 기금 수령	추진 중	-
2024년 예산안 확정	6월(잠정)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Agromashexpo (농업 박람회)	1.24~27	
Construma (건축 박람회)	3월(잠정)	
Automotive (자동차 박람회)	5월(잠정)	
Industry Days (산업 박람회)	5월(잠정)	
Dental World (치과 기자재 박람회)	10월(잠정)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신가영	과장	부다페스트 무역관	+36-1-799-5400	kayoungs523@kotra.or.kr

2024
헝가리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SBN : 979-11-402-0834-0 (95320)